

1999 여름호

스물하나

보관용



백혈병어린이후원회

사랑이 있는 푸른 우리 마을



동생이 주사 맞을 때의
비명 소리가
나와 엄마의 가슴을
찢어지도록 하네.

"아-아-악!"
길고 긴 비명 소리

지금도 배를 보면
수술자국 남아 있지.

건강을 찾은 내동생
나와 엄마의 찢어진 가슴
다시 붙여 주었네.

1999. 6. 15. 「내동생」

<http://childcancer.welfare.net>

동생 창성이의 신장암 치료로 친척과 이웃집을 옮겨다니며 외로운 유치원시절을 보내야 했던 나정이. 이글은 동생이 아파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쓴 글입니다. 나정이는 현재 경기도 광주 곤지암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사랑과 희망이 있는 마음



전남대병원 소아과
교수 황태주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이다. 희망이 없으면 아무일도 성취되지 않는다.”라고 헬렌켈러는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맹인이면서도 자신과 인류를 위해 훌륭한 일을 성취하였습니다. 나는 병마에 시달리는 우리의 어린이들과 그 가족과 그리고 이분들과 고통을 함께 하고 있는 후원회원 여러분들에게 헬렌켈러의 금언을 드립니다.

어린이 암환자들은 치료율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그 해결 또한 그리 만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 문제점을 한 두가지만 열거해 보겠습니다. 어린이 암환자들은 수시로 입원이 필요하고 때로는 아주 중독한 상태에까지 도달하는 경우도 많아 자주 수혈도 필요하고 경비가 많이 듭니다. 또한 자라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인격 장애를 포함한 정신심리적 발달적인 부담까지도 안게 됩니다. 소아 환자들의 부모 역시 그 연령층으로 보아 아직 안정된 직업을 갖지 못한 경우도 있고, 직업이 있더라도 경제적인 기반을 갖지 못한 경우가 태반일 뿐만 아니라, 아직 다른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간병인, 직업인, 주부, 자녀양육 등 3중, 4중고에 허덕이게 되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피곤한 지경에 도달하게 되어 자칫 치료를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가정 파탄에 가지 이르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아들의 치료를 위해서는 이 방면의 전문 의료진은 두말 할 것도 없고, 사회복지사, 임상심리학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 각층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린이의 건강이 그 나라 차세대 전체 국민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니 차세대 뿐만 아니고 몇 세대에 걸쳐 그 여파는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에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국가나 사회가 그 중요성 만큼 크게 기여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기여했다라도 일과성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 동안 환아들의 가족들은 병마에 시달리는 환아들을 위해 오직 사랑과 나을 수 있다는 희망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함을 볼 때 감동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그야말로 소시민들이 소위 사회의 엘리트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분들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환자들에게 버스비를 아끼고 한 잔의 차 값을 아껴 치료비를 보태주고, 혈액성분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헌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이들 환자들과 부모들의 결속을 다져주어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심적인 불안감을 위로 해주기 위하여 캠프를 열고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 파티, 어린이날이면 오락회 등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참된 석각자요,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분들이야말로 사회복지사이고 임상심리학자이고 마음을 치료해 주는 심의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의 일선에서 어린이 암을 치료하고 있고, 소위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학문을 하고 있는 저는, 이분들과 환아의 가족들을 대할 때 솔직이 부끄러움도 느끼고 때로는 용기도 갖게 되고, 그리고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분들의 뜻은 이처럼 환아와 환아가족과 의료진들에게 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채찍질이 되고 그리고 소금이 되어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마음을 만들어 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횡문 근육종



성균관의학대 삼성서울병원
소아과 성기웅

횡문근육종은 횡문근이라는 근육에 생기는 악성종양으로 소아 악성종양의 5-10% 정도를 차지한다. 사람의 근육에는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횡문근과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평활근이 있는데 횡문근에도 악성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 횡문근은 전신적으로 존재하며 따라서 횡문근육종도 전신 어디에서나 발병할 수 있으나 주로 머리와 목, 비뇨생식기계, 사지, 몸통, 후복막 등에 잘 발생한다. 종양이 진행하면 혈액이나 림프관을 통하여 다른 곳으로 퍼질 수 있으며 폐, 골수, 뼈 등에 잘 전이 된다.

주 증상은 종양이 만져지는 것으로 종양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 종양에 의한 주위조직의 압박, 파괴 등으로 인해 매우 다양한 증상이 일어난다. 진단은 종양을 조직검사하는 것으로 진단당시 수술로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조직검사를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종양의 위치나 크기, 주위조직으로의 침범으로 인해 종양의 일부만 떼어서 조직검사를 하는 경우가 흔하다. 진단시에 종양이 크기, 위치를 평가하고 퍼진 정도를 알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CT, MRI, 골수생검, 뼈 동위원소검사 등을 시행하게 된다.

치료는 여러 가지 예후를 결정하는 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중요한 예후인자로는 종양의 퍼진정도, 종양의 수술적제거 여부, 종양의 위치, 종양세포의 조직형, 진단시 나이 등이며,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방법, 치료기간 등을 결정하게 된다. 진단 후 우선적으로 외과적으로 종양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종양의 특성상 상당히 광범위한 수술을 요하며 완전절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여 치료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전 치료를 시행하여 종양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종양의 절제 가능성을 높인 후 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진단시 전신적으로 진행된 경우에 최근에는 고용량 화학요법이 시도되고 있다. 치료의 기간은 1년내지 2년정도이다.

종양의 발생부위, 퍼진정도, 진단시 나이, 외과적 완전적출여부가 예후에 중요하다. 안와(눈구멍), 비뇨생식기계 등에서 기원한 종양은 예후가 좋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외과적으로 완전적출이 가능했던 경우에 예후가 좋다. 종양의 완전제거가 가능했던 경우 80-90%의 장기생존율을 보이며 종양이 전신으로 퍼지지 않아 부분적으로 절제한 경우에도 66% 정도의 장기생존율을 보인다.



가정간호 백혈구 · 적혈구 · 혈소판 수치에 따른 증상과 대처방법

소아암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의 하나로 장기간의 투병생활이 필요함에 따라 부모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부모 자신이 치료에 대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부모들의 생각과 정서, 감정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아동 간호시 또하나 유념해야할 점은 아이들은 질병을 앓고 있는 가운데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연령에 따른 아동의 성장발달단계를 유념하여 아동의 육체적 욕구뿐만 아니라 정서·사회적 욕구도 적절히 충족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한다.

소아암 환자의 경우, 항암치료로 인한 많은 부작용을 갖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골수기능의 저하이다. 대부분의 항암제는 우리 몸에서 혈액을 만드는 골수에 작용하여 골수에서 생성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수치를 저하시킨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정간호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1. 백혈구 수치가 낮을 때

백혈구는 감염을 유발하는 세균과 싸워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몸의 백혈구수가 줄면 감염의 위험이 그만큼 커진다. 아무리 세심한 주의를 해도 감염의 가능성은 항상 있으며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 감염을 의심해야 한다.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들]

- ① 열(38°C 이상)이 난다.
- ② 춥고 오한이 난다.
- ③ 땀이 난다. (특히, 밤에 나는 식은 땀이 나는 경우)
- ④ 소변을 볼 때 통증을 느낀다.
- ⑤ 심한 기침이 나고 목이 아프다.
- ⑥ 설사가 있다.

이상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바로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의사와 상의없이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해열제를 쓰면 안된다. 백혈구 감소상태에서 열을 방치할 경우, 패혈증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구강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치과검진을 받아야 한다. 충치는 수치가 좋을 때, 미리미리 치료를 받아놓는 것이 좋다. 치과치료시 항생제를 복용할 경우는 신경을 써야한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

- ① 자주 손씻기 (특히 외출후, 식사전, 용변후)
환아 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도 같이 하는 것이 좋다.
- ② 수두, 감기, 홍역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모든 예방접종은 치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절대금지이다. 수두, 대상포진 환자 접촉시에는, 수두예방접종을 맞았거나 앓았던 환자는 면역주사를 맞지 않고,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환자는 24시간 내에 면역주사를 맞는다.
- ③ 입안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부드러운 칫솔 사용하기
- ④ 매일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샤워 후 수건으로 부드럽게



강의 :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소아혈액종양병동 김대희 수간호사

살짝 누르면서 닦는다.

단, 주사맞은 날, 수치가 낮을 때, 감기에 걸렸거나 몸에 상처가 있을 때는 샤워하면 안된다. 그 외에는 아동이 피로하지 않도록 단시간에 하는 것이 좋다.

- ⑤ 대변 본 후 항문을 부드럽게 닦아낸다. 만일 항문 주위에 상처가 있거나 통증을 호소하면 의사나 간호사에게 알린다.

2. 적혈구 수치가 낮을 때

적혈구는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적혈구수가 적어 빈혈상태가 되면, 신체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쉽게 피로해 지고 현기증, 한기를 느끼게 되며 숨이 차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적혈구 수가 너무 적으면(헤모글로빈이 8이하일 때) 수혈을 받아야 하는데, 친척으로부터의 수혈은 안된다. 또한 방사선치료를 받는 어린이들은 적혈구 수치 10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담당 의사에게 알려야 할 때]

- ① 가만히 있어도 어지럽고 숨이 찰 때
- ② 가슴에 심한 통증이 있을 때
- ③ 피나 짙은 갈색, 선홍색의 물질을 토했을 때

[지켜야 할 사항]

- ①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충분한 휴식을 한다.

- ② 푸른 잎 야채와 간, 육류를 많이 섭취한다.

- ③ 현기증을 피하기 위해 몸을 천천히 움직인다.

예를 들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바로 일어서지 않고 잠시 앉아서 쉰 다음 일어서도록 한다.

3. 혈소판 수치가 낮을 때

혈소판은 신체에 상처가 생겼을 때, 지혈작용을 한다. 혈소판이 부족하면 작은 상처에도 피가 나고 쉽게 멍이 든다. 혈소판 검사치가 매우 낮을 때에는 혈소판의 수혈이 필요하다.

[혈소판 부족시 주의해야 할 사항]

- ① 혈소판이 2만 이하일 때 : 외상없이도 자연출혈의 가능성이 있다.

혈소판이 10만 이하일 때 :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

- ② 담당의사와 상의 없이는 어떠한 약도 함부로 복용하지 않는다.
- ③ 양치질시 칫솔 대신 소독면봉을 사용한다.
- ④ 코를 풀 때 세게 풀지말고, 코를 후비지 않는다.
- ⑤ 피부접촉을 요하는 운동이나 몸에 상처를 낼 가능성이 있는 신체활동은 피한다.

[담당 의사에게 알려야 할 때]

- ① 쉽게 멍이 들거나,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겼을 때
- ② 잇몸이나 코에서 나는 피가 멈추지 않을 때
- ③ 소변이나 대변에서 피가 섞여 나올 때



영재 학교보내기 작전!

영재의 기분은 아마도 초등학교 입학때의 설리임일 것이다. 96년 백혈병을 진단받은 영재에게는 학교와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은 항상 그리움의 대상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내년이면 영재는 같은 나이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교에 입학한다. 영재 학교보내기 작전에 성공한 영재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어머니 영재가 감기가 심하더라구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오래가는 것이 영 찝찝해서 동네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죠. 선생님은 영재의 얼굴색에 놀라시며 피검사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결과는 빈혈로 나왔는데, 심상치 않으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소리에 바로 그날 새벽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죠. 백혈병이었어요.

KCLF 영재는 97년말부터 98년말까지 약 1년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어떠한 치료과정을 겪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머니 백혈병 중에도 어렵다는 골수성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저희는 담당선생님으로부터 4차 항암치료 후 자가골수이식을 시행한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시작한 항암치료와 병원생활은 우리 가족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영재는 다른 아이들보다 항상 치료 반응이 늦게 나타났어요. 수치도 항상 더디게 올라 애를 태웠고, 회복도 유난히 늦어 다른 아이들 보다 2주 정도 늦게 퇴원을 해야만 했어요. 그럭저럭 항암치료를 마치고 자가골수이식을 하기 위해 조혈모를 모으는데도 가슴을 태우더라구요. 이식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혈모량이 잘 모아지지 않아, 3차례에 걸쳐 모아야 했고, 투입도 13번으로 나눠 어렵게 이식을 마쳤어요.

KCLF 림프구성백혈병보다 입원기간이 길고, 복잡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골수성백혈병 치료를 받으면서 학교생활은 어떻게 했나요?

어머니 영재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발병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은 무리없이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배정을 받기 위해 양호실에서 시험을 보았지요. 중학교를 배정 받고, 입학식날 얼굴 한번 비친 것. 이것이 등교의 전부였어요. 입원치료가 워낙 길기도 하고, 아이의 면역성 때문에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등교는 꿈도 못 꾸었어요. 영재 뿐만아니라 골수성백혈병을 치료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치료를 마칠 때까지 거의 학교를 다니지 못하더라구요. 병원에서 영재가 학교에 다녀도 좋다고 한 것은 자가골수이식을 마치고 6개월 정도가 지난 작년 5월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이미 학교 정규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해 2학년 과정으로 갈 수 없다고 하더군요. 영재는 유난히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어했어요. 방법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결국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된 거죠.

KCLF 검정고시를 선택하고 준비하시면서 느끼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머니 그 어려운 치료를 받으면서 동심에 상처를 받은 것만도 억울한데, 완치되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학교가 없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많은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학년을 따라 갈 수 있다면 친구들과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검정고시를 선택한 것은 영재가 같은 학년과 공부하고 싶어하는 것도 있었지만, 우선은 아이의 학교생활 적응과 건강때문이었어요. 치료를 마치고 학교를 가더라도 몇 개월은 부모가 학교에 따라다니다시피 한다고들 해요. 집에서



신영재 (사진의 오른쪽)

1984년 4월 12일생

1996년 11월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받음

1997년 11월 자가골수이식 성공

현 재 내년엔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음.

는 아이의 상태에 따라 공부를 시킬 수 있고, 학교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없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는 아이만 살피면 되니까 그만큼 수월해지고요. 그러나 친구들과의 접촉이 없다는 것이 큰 단점이에요. 그러나 영재는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모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얼마나 아이가 혼자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가족들이 함께 노력해줄 수 있는지 등의 문제예요. 아이나 부모가 게을러지면 흐지부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영재처럼 중학교과정을 전혀 접해보지 못하고 준비한다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 2학년 초 정도의 과정까지 접해본 아이라면 그 이후의 것만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KCLF 검정고시 준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머니 우선,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에 자퇴서를 써서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시험은 매년 4월, 8월 두 번이 있는데, 2개월 전에 교육청,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일정을 알아보고, 검정고시를 접수하면 돼요. 중학교 과정은 8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선택1, 2)이며, 과목당 합격점수는 60점이에요. 또 과락제도가 있어서 40점 이하의 과목은 다음 기회에 과락된 과목만 응시하면 돼요. 영재는 위성방송을 들으면서 준비를 했어요. 위성방송은 꾸준히 듣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학기 중의 수업내용을 방학 때 재방송을 하기 때문에, 혹시 두 개 학년 공부를 같이 할 경우는 학기와 방학으로 나눠 들으

면 부담이 없을 거예요. 교재는 서점에서 판매해요. 그리고 시험은 중간수준 정도로 출제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KCLF 가족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은데, 영재네 가족은 어떻게 영재에게 도움을 주셨죠?

어머니 영재가 운이 좋은 것은 아빠가 학계에 있었다는 점이에요. 아빠는 영재가 모르는 것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영재가 운동이나, 놀이를 하고 싶을 때 동생과 아빠가 그 상대가 해주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 해주었던 것이 영재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KCLF 영재의 꿈과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겠어요?

영 재 치료받을 때는 아이들의 아픔을 잘 아는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고생한 병원에서 일한다는 게..... 적성에도 맞지 않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꿈이 바뀌었는데요. 과학자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이쪽은 연합고사를 봐야 해서 앞으로 천천히 준비할 생각이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같은 학교애들이랑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할 생각이예요.



너무도 소중한 우리의 인생

그동안 내가 얼마나 우물안의 개구리같은 삶을 살아왔었는가 하는 깊은 자성을 하도록 만든 사건이었다. 37살에 얻은 외아들이 백혈병과의 고통스러운 씨름을 하게 됨으로 인해, 아슴프레 기억이 나는 유아기에서부터 현재까지 40평생의 죄스러운 삶을 하나하나 반추해가며 가슴 저미는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 또 아버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자녀에 대한 무한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 왔고 또 하지도 못하는 자격없는 아버지의 초라함을 처절하게 감수해야 했다. 이 세상에서 불치병과 난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애틋한 심정을 이제서야 뼈 속으로부터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얼마나 입술로만 사랑을 해왔던가를 깨달으며 절로 겸손해 질 수밖에 없었다. 내 아들을 내가 아닌, 얼굴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의 물질적인 도움으로 치료해가면서 내 사정만 생각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지난 날을 반성하고, 앞으로 내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게 되었다.

지난 18개월의 세월은 내가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것들을 놓아 버려야 하는 시기였다. 월세를 계속해서 내지 못함으로 인해 보증금이 많이 사라져 버렸고, 도둑까지 들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힘이 되어주던 사람들이 떠났고, 나의 건강도 악화되어 병원 치료와 약을 복용해야 했다. 살아있다는 것으로 자족해야만 했다.

그러나 새로운 것들을 얻은 시기이기도 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나의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고마운 사람들로 인해 깨달을 수 있었다. 단지 그동안 내가 국가와 종교와 환경과 조건들을 가지고 그들을 나에게서부터 잘라내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을....

백혈병이라고 정확하게 진단받기까지의 두 달동안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다니다가 아이의 목은 꺾어져서 펴지도 못했고, 누워서 잘 수도 없을 정도로 등까지 휘어서 유모차에 앉은 채로 채워야 했다. 병명도 모르며 하루종일 고통에 겨운 비명을 질러대던 아이는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더욱 처절하게 아파했다. 언제 내 곁을 떠나갈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 순간들과 계속 부딪혀야 했다. 8일만에, 몇 달만에, 1년이 지난 후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먼저 가버리는 아이들과 남겨진 가족들의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눈물을 흘렸다. 40개월이 되었지만 9kg대의 몸무게를 나타내며 멈추지 않는 설사와 잦은 구토를 하는 아이가 언제까지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지, 또 완치된다해도 언제 재발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곳곳하게 살아나가는 아이를 보면서 삶의 무게에 주저앉아 탄식이나 하며 세상을 비관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도 소중한 것이라고 스스로 되뇌인다. 나에게 삶의 새롭고 깊은 눈을 뜨게 해 준 고통들을, 지금도 함께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작은 촛불이 되어가고 싶다.

성만의 아버지 최주환.

최성만어린이(만 3세)는 98년 2월에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을 진단받고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백혈병 어린이 후원회에서 자원봉사를 마치며



자원봉사자 김진경

대학 친구로부터 제의를 받았다. '백혈병 어린이 후원회'라는 곳에서 자원봉사를 해볼 생각이 없느냐는 것이었다.

"뒤히는데?" "병원에 나가서 백혈병이나 소아암에 걸린 어린이 환자들이랑 프로그램 진행하고,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에게 수퍼비전을 주는 거래."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클라이언트(서비스 수혜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가장 매력적인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그만큼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도움을 제공하는 일에 지식과 기술의 축적, 그리고 신중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인간과 인간의 일대일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에 더해 사회복지사라는 원조 전문직(helping professional)이 가지는 목적의식까지 개입되니 말이다.

어쨌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어린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회는 내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어차피 졸업 후 유학을 가기 전까지는 시간도 많았고 경험은 재산이라는 생각에 별 고민없이 결정을 했다. 기관에 처음 방문하여 과장님 외 직원들을 만나고,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후 어린이들을 만난다는 들뜬 마음으로 한양대 병원으로 향했다. 그런데 소아암 환아들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실망 반, 당황 반으로 다른 병실 아동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게다가 한양대학의 자원봉사자들도 제대로 오지 않아 마음 속은 굉장히 불안했다. 그러나 점차 병원의 상황에 익숙해지고 자원봉사자들과도 친밀해지면서 어색함은 점점 편안함으로 바뀌어갔다. 사실 나이도 거의 비슷한 자원봉사자들에게 내가 수퍼비전-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느낀 점이나 의견을 교환하며 원활하고 보다 바람직한 활동을 지속하도록 돕는 것-을 준다는 것을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궁금했고, 실제로 내가 그들에게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각종 서적과 외국 간행물들을 살펴보면서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겪을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현장에서 아픈 어린이들을 대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관찰하면서 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그 개선방안, 그리고 발전상 등을 고민하게 되었다.

12월 말부터 6월까지 약 7개월간의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마음을 차츰 열어 가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고, 자원봉사자들과 나 자신이 성숙해감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하루하루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대해가고, 스스로 가지고 있던 암에 대한 편견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은 나를 뿌듯하게 했다. 나 또한 자원봉사자들에게 한명의 교사나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함께 나누어주는 사람으로서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 기

억에 남는다.

나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한양대 자원봉사자 중 정유선 씨는 겨울방학부터 학기중 프로그램까지 2회기를 연속 참여하여 지속적인 아이들과의 만남, 안정된 진행을 도와주었고, 한 아이의 상황이 나빠진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유선씨의 아이들에 대한 공감은 우리 자원봉사자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자원봉사 활동 및 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도 좋은 자극이 되었다. 또 대학 신입생으로 열심히 참여해주었던 백영하, 정현경씨도 자원봉사 활동이 즐겁고 뜻깊은 기억이 되었다고 한다. 나에게도 6개월간의 자원봉사가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솔직히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크다.

내 자원봉사 활동의 주업무는 병원에서의 프로그램 진행이었지만, 그 외에도 후원회에서 여러 다른 활동에 참여했다. 후원자 관리 업무나 발송 작업 등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일을 함께 하기도 했고, 외국의 자료들을 번역하는 일을 돕기도 했다. 책들은 주로 소아암 환아나 그의 가족들이 느끼게 되는 정서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대처방법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의 상황을 더 깊이 공감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실제적인 지식을 얻는 기회도 되었다. 그 밖에 후원회의 주업무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올여름에 계획하고 있는 여름 캠프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하고, 후원회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작은 인형극workshop을 마련하기도 했다. 당연히 이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소중하게 기억된다. 후원회에는 주요 업무를 계획하고 관리, 조직하느라 바쁘신 후원회의 사회복지사, 간사님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여러 업무를 맡아보면서 단지 관리자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동료 또 친구로 좋은 만남을 가졌던 것들은 내가 후원회에서 얻은 가장 좋은 기억 중의 하나이다. 나를 마치 직원처럼 다정하게 대해 주신 분들 덕분에 내가 더 자유롭게 능력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후원회 사무실을 처음 방문하던 날, 한양대 병원에 간 첫 날 당황하던 나의 모습, 아이들이 싸우고, 울고, 웃고 장난치던 모습들, 마지막 활동 평가 날 자원봉사자들과 나누었던 진지한 이야기들, 후원회 활동이 계기가 되어 우연하게 신문기사화 된 인터뷰, 후원회 선생님들과 가졌던 여러번의 파티(?), 연천 푸른우리마을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했던 M.T. 등등. 사람은 기억을 먹고 산다고 했나? 이제 다음 주면 나는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 후원회에서 얻은 여러 좋은 기억들로 가슴을 채우고 떠나게 되니 참 좋다.

사랑이 모이는 곳

제7회 가족캠프

후원회에서는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경기도 가평 허수아비마을 캠프장에서 가족캠프를 개최한다. 92년 개최를 시작으로 일곱 번째를 맞는 이번 캠프는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캠프는 소아암 가족의 가족결속력 강화, 환아의 질병 대처능력 향상, 형제의 소외감 완화, 부모의 효과적인 역할수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환자, 부모, 형제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레크리에이션, 캠프파이어 등의 다양한 재미을 제공한다. 캠프 보조에는 소아암 치료를 마치고 성인이 된 완치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의료진이 어린이들의 안전과 각종 교육에 참여한다.

캠프 안내

- 일자 : 1999. 7. 30.(금) - 8. 1.(일) 2박 3일
- 장소 : 경기도 가평 허수아비마을 캠프장
- 대상 : 소아암치료를 받고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와 가족들 (단, 부모, 형제가 꼭 참석해야 하며 형제도 초등학교 학생이어야 함.)
- 주요 프로그램
 - 환아 : 놀림에 대처하기, 완치자와의 대화, 내병에 대해 이해하기, 학교어려움 다루기 등
 - 형제 : 형제의 병에 대해 이해하기,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역할극, 고민해결 등
 - 부모 : 스트레스 대처법, 부모·자녀간 대화 잘하기 훈련 등 그밖에 가족의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각종 레크리에이션과 캠프파이어가 준비되어 된다.
- 참가비 : 가족당 3만원
- 신청기간 : 7월 1일 - 7월 10일
- 신청처 : 백혈병어린이후원회 사무국 (☎ 02. 766-7671)

소책자 배부 안내

세 번째 소책자인 '둘리와 함께 쓰는 병원일기 (소아암 어린이 병원생활 익히기)'가 지난 6월 10일자에 출간되었다. 행정자치부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주)둘리나라의 자원봉사로 제작된 이번 책자는 환아가 치료과정을 표현한 그림들을 색칠하면서 치료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치료에 긍정적인 자세로 대처



하도록 돕게 된다. 또한 환아의 형제, 학교 유치원 친구들에게 환아의 현재 상황을 알리고 이해하도록 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책자는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배부 안내

- 대상 : 소아암 치료를 받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미만의 어린이
- 문의 및 신청 : 백혈병어린이후원회 사무국 (☎ 02. 766-7671)

상문고 헌혈증서 모으기

상문고등학교 총동창회(회장 최원재)는 지난 6월 20일 모교 운동장에서 '99 상문고 동문 사랑의 헌혈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출발은 미약하지만, 소아암어린이들을 위해 지속적인 헌혈증서를 모으기를 전개하겠다'는 최원재 회장은 올 연말 모교 재학생과 교사 전원이 참여한 헌혈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임을 알려왔다. 각 기수별로 모은 헌혈증서는 행사당일 후원회에 전달되었다.

거북산에 이어 스프링스, 소아암어린이 돕기 행진 - 레고코리아

레고코리아(사장 이윤하)는 지난 4, 5월에 걸쳐 소아암어린이 돕기 스프링스 조립대회를 개최하였다. 롯데백화점 분당점, 까르프 일산·울산·분당점, 농협 창동 하나로마트 등을 순회한 이 행사에는 어린이와 주부들의 참여로 2614,510원의 성금이 모아져 지난 5월 말 후원회에 전달되었다. 어린이들의 꿈을 소중하게 가꿔 나가는 레고코리아의 '소아암어린이 돕기 행진'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희망으로 함께 가요 - 경기가족걷기대회

4월 마지막째주 경기동문들의 큰 잔치, 경기고총동창회(회장 김우중) 주최 경기가족걷기대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아암어린이 돕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올림픽공원을 행진하였다. 각 기수별로 모아진 후원금은 총 10,257,750원. 소아암어린이들을 위해 모아진 이 금액은 소아암어린이 가족들에게 배포되는 회보 제작에 일부가 쓰여졌고, 앞으로 정서지원사업으로 쓰여지게 된다.

천사백운동 Q&A

● 자동이체를 시켰는데 수수료가 붙나요?

대부분의 은행은 '계좌간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단, 지방소재 주택은행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해주신 후원자님 중 후원금이 10,000원이상일 경우에는 수수료로 200원이 붙게 됩니다. 은행 시스템이 그러하오니, 널리 이해부탁드립니다. 수수료 부담하지 않는 방법으로 날짜를 달리하여 후원금을 분할(만원 미만), 자동이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 98년도에 사용된 인건비가 너무 많네요?

지난 호에 실린 후원회의 98년 사업보고서를 보시고 인건비가 많이 사용되었다라는 지적을 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천사백후원금 지출내역이 아닌 후원회의 전체 결산 내용이며, 본 회의 인건비는 다른 후원단체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많지 않습니다. 현재 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근 직원은 5명이며, 이들의 인건비는 기업체 등에서 보내주신 특별후원금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천사백 후원자님들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천사백 후원자님들께 보내드리는 회보발송과 같은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백혈병 및 소아암 어린이들의 수술비로 사용됩니다.

● 후원회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개선점 등을 보내주세요.

후원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택되신 후원자님께서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동이체 수수료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신 문승배 천사백후원자님께 감사드리며, 많은 후원자님들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뜻을 하나로 모으는 사람들

만남 '96

한뜻-기39 김용연

1996년 봄 딸아이와 함께 백혈병어린이후원회를 찾은 지가 벌써 3년이 흘렀다. TV에서 백혈병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과 가족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보고 눈물을 흘렸었다. 내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힘을 모아 어린이들의 꺼져가는 생명에 불을 지필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그라운 일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데에 소쩍새마을 나건이 더했었다. 마음 그운이들의 뜻을 모인 후원금이 개인의 욕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고, 후원금 내는 것 이상으로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는가 감시하는 것 역시 우리들의 몫이라는 생각에 후원회 방문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 당시 나는 나의 이런 방문 목적을 말씀드렸고,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고 싶다고 하였다. 그 이후 내가 지켜 본 바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운영이 잘 되어있다고 생각된다. 나는 나의 이런 내세우기도 민망한 후원금이 오히려 나와 나의 딸아이의 마음을 살찌우는 것을 느낀다. 딸아이의 이름으로 적은 액수지만 후원금을 보내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커서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것을 보면 오히려



내가 든든한 후원자를 얻은 셈이다. 백혈병 어린이들의 수호천사인 이 후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은 결실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1999. 6.

'한뜻소식'은 한뜻후원자님들(정서적 지원후원자)의 자유로운 글을 실는 공간입니다. 소아암어린이와 가족에게 보내는 격려편지, 후원회에 바라는 점, 후원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 등을 기탄없이 보내주십시오.

◆한뜻후원자 소식

감사드립니다.(새로 가입하신 후원자)

- | | | | | | |
|-----|-----|-----|-------|-----|-----|
| 빅형도 | 황은숙 | 정은선 | 이종섭 | 유병기 | 이은기 |
| 김대수 | 이은미 | 이종국 | 김영숙 | 김수영 | 제덕호 |
| 최해운 | 조한철 | 임양수 | 창조꽃농원 | | 김종재 |
| 신정화 | 김인자 | | | | |

(99. 3. 16. ~ 5. 31.)

한뜻 후원자는 소아암어린이들을위한

정서·정보지원사업을 지원하는 후원자입니다.

금액은 제한 없으며 지로와 자동이체(국민,조흥,기업은행) 방법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후원회 사무국에서 받습니다. ☎ 02 766-7671

천사백운동 지원 환자 천사백후원금을 지원 받은 어린이들을 소개합니다.

김영준(3세/남/신경모세포종 98. 4./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영준이는 이미 수술을 마치고 곧 퇴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수술 전 히크만(조혈모를 모으기 위해 가슴에 삽입하는 관)을 손으로 뽑는 등 온갖 말썽을 부리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영준이도 가정형편을 아는 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잘 참아주어서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수술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들었다'며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영준이 어머니. 어머니는 요즘 아이의 평온한 모습을 보면서 종이접기에 열중하고 계신다.

최다혜(9세/여/급성림프구성백혈병 94. 4./가톨릭 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다혜는 96년에 이미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다시 재발을 하여 언니로부터 골수를 이식받아 4월말 수술을 받았다. 아버지의 퇴직금을 미리받아 메워도 모자라는 수술비, 만약 재발이라도 한다면.... 암담한 현실에 걱정만 하시다 천사백 후원금을 받게 된 다혜 어머니는 너무나도 기뻐하셨다. 현재 다혜는 회복실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다영(3세/여/월령종양 98. 6./고려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다영이네 가족은 조그만 월세집에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던 중 다영이의 수술이라는 커다란 시련을 맞게 되었다. 그런 다영이 가족에게 천사백 수술비 지원 소식을 알리자 다영이 부모님은 계속해서 '천사백 후원자들에게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수술을 마친 다영이를 만나러 병실을 찾았다. 자그마한 체구가 안쓰러웠지만 낮 가림없이 장난을 치는 밝은 모습이 보기 좋았다. 다영이는 앞으로 2차 수술을 할 예정이다. 어린 다영이가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길 바란다.

백지현(4세/여/급성림프구성백혈병 98. 9./진주경상대학병원에서 치료 중)

지현이는 6월 2일에 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기다리는 중이다. 다른 어린이들과 달리 수치의 회복도 빠르고 열도 많이 나지 않은 편이라 회복이 빠를 거라는 의료진의 말에도 지현이 어머니는 마음이 놓이시질 않는지 불안함이 열력하다. '치료가 안되는 것도, 잘 되는 것도 걱정이 다'라고 심정을 털어놓으신다. 앞으로도 지현이의 치료가 지금처럼 수월하길...

신영재(14세/남/급성골수성백혈병 96. 2./전남대병원에서 치료 중)

영재는 재발 후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천사백 수술비를 지원 받은 영재 어머니는 짧은 글로 천사백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았다.

영재(14)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의 가슴속에 인도의 숨을 쉬게 해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슴조이며 살아가는 부모의 심정을 도와주신 후원회 여러 선생님들께 얼굴은 볼 수 없어도 눈물로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일 잘 되시고 가정의 편안과 행복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최애리(3세/여/신경모세포종 98. 4./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아무도 애리의 고집을 꺾질 못한다. 애리는 병동의 무법자! 병실, 제일생명의 집(후원회가 운영하는 지방환아 숙박시설)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며 귀여움을 독차지한다. 유난히 오빠 팬들이 많은 애리가 이제 곧 수술을 받게 된다. 아버지의 실직으로 수술비 걱정이 태산같던 어머니도 천사백 수술비 지원 결정에 이젠 애리의 수술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애리 화이팅!

천사백운동은 소아암어린이를 돕는 작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 천사백운동이란?

천사같은 이웃이 되어 매달 1구좌에 천사백원(1,400원)이상을 백혈병을 포함한 소아암 어린이 골수이식 수술비용으로 후원하는 이웃사랑 운동입니다.

● 골수이식 수술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백혈병을 포함한 소아암 어린이들은 치료를 위하여 항암치료와 골수이식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골수이식의 경우 수술비가 약 2,000만원 정도가 들고 의료보호 환자의 경우 이보다는 비용이 적습니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거나, 수술 후 처치 등으로 그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아암 어린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천사백원(1,400원)으로 도움이 되나요?

개인적으로 보면, 비록 1,400원이라는 적은 금액이지만 1만 구좌의 많은 후원자가 모이면 1,400만원이 되고, 이 금액은 매월 1-2명의 소아암 어린이들이 새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후원자가 모이면 더 많은 어린이들이 수술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이 운동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3,845명입니다.

● 천사백운동의 좋은 점은?

후원자들은 후원금에 대한 부담이 없어 지속적으로 후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끝나기 쉬운 수술비 지원이 계속될 수 있게 됩니다. 또, 후원자 한분이 한명의 어린이를 돕는 것이 여러명의 어린이에게 새생명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됩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들도 쉽게 참여해 이웃사랑을 직접 실천할 수 있습니다.

● 천사백운동에 참여하시려면.....

전화로 후원자 등록을 하신 뒤, 1구좌(1,400원) 이상의 후원금을 18개 은행 중 선택하신 은행의 천사백운동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을 하여 주시면 됩니다.

천사백운동에서 만난 천사

사진기, 벽거울, 인형, 벽시계...

지난 호 후원회에서 필요한 물품기증 기사가 나간 뒤 천사백 후원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후원물품이 이어졌습니다. 이윤혜, 이은서, 김희정, 윤동필 천사백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물품은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수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물품구입 후원금은 푸른우리마을의 커튼을 마련하였습니다.

◆ 천사백 운동 참여 현황 (1999. 5. 31. 현재)

자동이체 가입후원자 : 3,845명

자동이체 구좌 수 : 11,626구좌

※ 온라인 일시 입금 및 지로구좌는 제외된 현황입니다.

※ 주소 또는 은행, 구좌수가 변경 되신 후원자님께서서는 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부모소모임 일정 안내

7/8	자녀와의 대화기술
8/12	심리극(예정)
8/26	완치자의 부모와의 대화
9/9	치료에 관한 질의 및 응답
9/30	가을소풍

장소는 제일생명의 집이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부모님께서서는 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시오.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정민영 사회복지사)

◆천사같은 이웃을 소개합니다.

(99년 3월 2일-99년 5월 31일까지 처음으로 후원금을 입금하신 분들)

경남은행(514-07-0175564 예금주:백혈병어린이후원회→타은행도 동일)

고명진	고범석	고채정	기희순	김경종	김미영	김숙경	김정임
박숙	손현숙	신수향	이재진	장오수	정다진	정재혁	정진규
하가애	황인숙						

광주은행(200-107-315315)

김민호	김범덕	김재호	문대응	박만자	박은주	박진영	송윤수
윤세민	이동훈	이유승	이정호	임성훈	정종호	정희순	

국민은행(031-01-0414-356)

강승찬	고귀조	권은정	김교원	김금자	김대학	김대현	김동호
김미숙	김성구	김자정	김정숙	문재식	박경철	박미란	박연숙
박운호	박을임	선봉순	손중락	송개순	송원경	안정순	안철기
오승훈	유미숙	윤혜옥	이도선	이병주	이보남	이영순	이윤주
장영태	전경옥	정경임	정연채	정영자	조희경	주순옥	주정민
주정식	차명자	최영주	홍제수				

기업은행(090-000260-04-022)

김경숙	김영화	김재순	김춘배	신정수	신한경	윤상원	이선형
정금윤	정은실	조경미	조광미	조보현	허윤정		

농협(029-01-170940)

강대영	고민자	고천석	권오경	김규리	김명희	김상우	김성삼
김순열	김영신	김영철	김진심	김창열	김태식	김태호	김해동
김현정	김희연	대전심경가스	박상길	박종률	박호진	서보람	
서석일	송명중	송원우	신대용	신용호	신정희	안정례	안정인
엄혜경	유용화	유태경	윤오남	이금선	이만희	이명자	이미애
이선남	이유신	이인희	이재경	이재상	이재한	이정규	이종구
이향찬	임도순	임숙자	임후순	장민재	장준혁	정춘화	정필수
조영택	조현	주승만	차광희	채순옥	최란	최재열	탁세웅
함명희	허신숙	현향호	황은상				

대구은행(004-05-179828-001)

곽영적	김영호	문가희	민두래	박명숙	성양기	신종현	황혜안
-----	-----	-----	-----	-----	-----	-----	-----

부산은행(070-01-021379-8)

김민정	김상우	남희정	지원태
-----	-----	-----	-----

서울은행(16508-2945601)

(주)중원철강	권오악	권자경	김경숙	김옥란	나성수	박용석
양의섭	이상민	이혜민	정은선	최장미	표신완	

신한은행(394-01-000694)

고완주	고혜영	김민수	맹선옥	손영미	손영숙	윤혜경	이영동
정영희	조용주	최재균					

외환은행(141-22-00799-6)

김광재	김영길	박계희	박진영	배영선	배장식	백성건	양정옥
이길석	이영아	이춘상	전은주	정우석	정준	정혜옥	최관목
최재익	홍동우						

제일은행(225-20-385050)

김재영	김홍자	남영숙	변선옥	오향란	이경아	이소정	조순덕
조혜정	황정아						

조흥은행(367-01-192434)

강전태	강정화	고길만	김강열	김남수	김상태	김수현	김용선
김철호	김태형	도승현	도현주	박변주	박소연	박인철	설연순
송재혁	심상길	오명열	이복수	이상봉	이승봉	이예준	이옥자
이원호	이응준	이창섭	이훈재	장명자	장재관	채수백	최윤정
황희자							

주택은행(488401-01-001485)

강유정	김마숙	김상훈	김한기	김희량	문승배	박체용	백현민
소삼석	염내현	이나라	이명섭	이상미	이은혜	임금홍	정현숙
허정아							

축협(043-11-13275-816)

권영희	여경자	최예경
-----	-----	-----

하나은행(144-121835-00105)

김미라	김희정	박인섭	최재원	최창열
-----	-----	-----	-----	-----

한미은행(100-59711-251)

강성호	박인수	최명기
-----	-----	-----

한빛은행(112-04-112571)

*이전 한빛은행 계좌는 기존에 신청하신 후원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민호	곽승인	구은숙	권윤화	김기은	김경환	김나영	김낙일
김남진	김보영	김성구	김숙자	김의정	김인숙	김종구	김창수
김창욱	김태원	김태주	김평규	김하련	김현옥	문기명	박명훈
박옥이	박지영	신명순	신현순	심향숙	우미자	유제국	육철한
윤선화	이계향	이난희	이락희	이성은	이상일	이영란	이재률
이종두	임의제	장병현	장택균	정미진	정석우	정재훈	정주현
조경호	조석동	최문희	최중화	최지현	최희선		

우체국(012989-0037222)

박석환	연흠숙	최종태
-----	-----	-----



사랑의 모음터

◆ 사랑의 헌혈증서

박소연(9) 진성현(7) 서홍식(4) 조성례(6) 故김예진(187) 서울자유의집(83)
 석세희(1) 정지웅(10) 장재영(1) 황순석(3) SK텔레콤(광주파란대리점, 26)
 문지원(1) 서지오(93) 송관영(1) 김수경(1) 김선아(6) 고종환(1)
 대구보건전문대간호과(56) 오정훈(2) 한홍수(1) 김홍철(1) 상문고총동창회(38)

◆ 특별 후원금

4월 은창인테리어 100,000 경기가족걷기대회 10,257,750 청담회 200,000
 새마을금고 500,000
 5월 독일한인교회 1,023,712 청담회 200,000 레고코리아 2,614,510
 6월 무명 10,000,000

◆ 후원물품

오성수 푸른우리마을 커튼(이십만원) 이은서 인형(33) 안효섭 찻잔세트
 김희정·최형승 자동카메라, 동화책(5) 윤동필 벽시계(1) 장준혁어머니 모자(2)
 제일생명(주) 반찬그릇(3), 양념통(3) 조용주 슬리퍼(30) 김진경 벽시계(1)
 함춘후원회 뉴케어 (250ml 30) 이윤혜 수제벽거울(3) 박혜영 베개(2), 이불

◆ 물품 후원 안내

후원회는 비품구입비를 절약하기 위해 사무국과 후원회가 운영하는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 또는 무상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에 이상이 없는 중고품이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시오. 보내주시는 기증품 하나하나가 후원회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사무국 : 복사기
- ▷ 제일생명의집 : 냉장만 되는 소형냉장고
- ▷ 푸른우리마을 : 신발장, 벽시계

이번 '사랑이 있는 푸른우리마을' 여름하는
 (주)한국텍스트마리온렛셀 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발행인/안효섭 발행처/백혈병어린이후원회 110-460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14-3번지 전화 : 766-7671~3 팩스 : 766-7674 제일생명의 집(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766-7671) 푸른우리마을(경기도 연천, 0355-834-9981) 예금구좌 : 310-03-002396(조흥은행) 012989-0019486(우체국) 7607451(은행지로) 예금주 : 백혈병어린이후원회

